

# 민주노총 미군기지 반대투쟁 보고

2006· 11· 25

## 1. 사업개요

민주노총에서는 미군기지 반대투쟁을 통일위원회에서 기획·교육·선전·조직·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해서, 민주노총 차원의 대중적 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통일위원회는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 통일운동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통일운동역량을 강화하고 제 민주단체 및 통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의원대회 결의로 구성하였다.

통일위원회는 노동자 통일관련 교육선전, 노동자 통일운동역량의 조직화, 통일운동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각종 통일운동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통일운동체 회의 및 활동 참여, 통일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기타 통일운동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통일위원회는 통일위원장과 가맹, 산하조직의 통일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통일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일위원장이 월 1 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민주노총 강령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7.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통일위원회의 사업집행은 총연맹 사무총국(대외협력실 통일국)에서 담당한다  
(대외협력실은 민중연대,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정부·대국회·대정당, 국제, 정치, 통일사업을 담당)

통일위원회에서는 조국통일사업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보고,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2. 연도별 미군기지 반대투쟁보고

### <1999 년>

노근리 학살만행 등이 잇달아 밝혀지면서 SOFA 개정국민행동, 자통협 등이 새로 시작한 미군의 양민학살, 베트남전쟁에서의 고엽제 살포 규탄 및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개정운동이 정례화 되는 등 반미 자주화 운동도 대중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범민족통일대축전 및 노동자통일한마당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통일운동의 당면과제(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를 적극 실천하고 노동자대중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한다.

### <2000 년>

#### 1. 매항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 5 월 25 일 민주노총 통일교양 대자보 “매항리 꽃향기...” 6000 부 제작, 배포
- 6 월 17 일 ‘매항리사격장 폐쇄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매항리 미군폭격장 폐쇄를 위한 제 2 차 범국민 대회 개최.
- 6 월 24 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매항리사격장 폭격재개 규탄과 매항리 사격장 폐쇄촉구 및 올브라이트 방한 규탄 범국민 결의대회 진행
- 7 월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조직위원 김판태 동지 ‘매항리 범대위’ 파견
- 8 월 10 일~12 일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를 비롯한 2000 년 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매항리 농섬 사격장 점거투쟁 및 철조망 철거투쟁 전개
- 9 월 15 일 민주노총 통일교양 비디오 2 “매항리에 평화를” 제작, 배포
- 9 월 23 일 매항리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문화한마당 “매항리를 평화의 땅으로” 및 미국반대 국제연대 행동의 날 집회 개최(한국, 일본,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 10 월 20 일 아셈반대 투쟁기간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11 월 4 일 매항리 상징 조형물 건립식 및 민족 장승제 개최

#### 2.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국민행동

- 매월 둘째주 화요일 2 시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에서 월례집회 개최 (12 월 12 일 15 차까지 진행됨)
- 5 월 23 일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과 매항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시국간담회
- 5 월 27 일 민주노총 주최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전면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 7 월 29 일 미군반대. SOFA 전면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서울역)
- 9 월 28 일 계속되는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규탄과 조속한 한미 SOFA 협상 재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미대사관 옆 시민공원)
- 10 월 28 일 미군범죄희생자추모. SOFA 전면개정을 위한 노래판굿 '봉숭아'공연 개최(고윤금이 기일)
- 12 월 1 일~7 일 "10 차 한미 SOFA 협상"기간 동안 협상장(서초구청 옆 외교안보 연구원) 농성 및 항의시위 개최

#### <2001 년>

1. 서울 용산 미군기지반환투쟁의 정례화(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 시)를 포함한 인천, 군산, 부산, 대구, 파주 등 전국의 주한미군기지 폐쇄투쟁의 대중적, 조직적 전개.
2. 전쟁반대! 파병반대! 평화실현! 3 만 7 천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주둔 10 만 미군철수를 위한 민주노총 서명운동 - 12 월 13 일까지 1 차 5,600 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서명 취합 공표
3.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투쟁 지속 전개.
4.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한 미대사관 월례집회 지속 중.

#### <2002 년>

1.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호순 심미선양 살인 규탄 투쟁
  - 6/13 경기도 양주에서 신호순, 심미선 양이 미 2 사단(캠프 레드 클라우드) 소속 54 톤 미군 궤도차량이 갓길까지 넘어 뒤에서 덮쳐 오는 상황을 피하려다 먼저 운동화까지 벗겨진 채, 차례로 깔려죽은 그 누구도 단순한 과실로 보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사건 발생.
  - 사건 당일부터 자통협, 민주노동당 등에서 초기 현장 조사 등 초동 대응 시작.
  - 6/20 미 2 사단 항의 방문, 의정부 여고생 시위 참가

- 6/26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호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1 차 범국민 규탄집회 개최되면서 거의 매일 항의집회 시작됨.
- 7/14 2002 년 민주노총 통일일꾼전진대회를 마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주한미군 규탄 노동자 결의대회(11 시)와 이어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주한미군 규탄 제 4 차 범국민대회(12 시)가 미 2 사단 정문 앞에서 개최되면서 집회 규모확대.
- 7/23 일 민주노총 60 만 전 조합원 추모리본 달기 등 실천지침 공문발송 : '부시 사과' 관철 시까지 전 국민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확대 지속. "謹弔 두 여중생 갈아 죽인 주한미군 물러가라"(검정 천에 흰 글씨) - 11 월말까지 15 만 개 보급함.
- 7/27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규탄 제 5 차 범국민대회가 처음 서울에서 개최(종묘).
- 7/31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 희생자 고 신호순, 심미선양 49 재가 훨씬 서울시청 앞에서 폭넓은 참여 속에 확대 개최.(이후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되면서 대협실로 주업무 이관, 협력사업 추진 중 - 여전히 대부분의 연맹 및 지역본부는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 진행)
- 11/10 노동자대회 2 만 조합원 한자리 리본 달기 투쟁 조직(현장에서 2 만 5 천개 보급).

## 2. 2002 노동자통일일꾼전진대회(7 월 13 일~14 일 광운대)

애초 부시정권의 군사패권주의와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6.15 공동선언을 관철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투쟁키로 하였으나 "피어보지도 못한 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중생 고 신호순, 심미선 양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요구 등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당면 현안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야 할 필요"에 따라 투쟁 장소를 의정부 2 사단 정문 앞으로 변경 개최함.

전진대회 및 문화제에 1,000 여명 참가하여 빗속에서도 밤새 뜨거운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다진 후, 의정부 살인만행!경제침탈!미군기지폐쇄!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 제 4 차 범국민대회'에 1,500 명(총 3,000 여명)이 참가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

노동자가 주역이 된 제 4 차 범국민대회 투쟁은 여중생 투쟁이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함.

## 3. LPP(연합토지관리계획)반대투쟁

2001 년 11 월 한.미 당국은 33 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여 미군기지 4 천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도심지 땅 75 만평을 새로 공여하기로 하는 의향서에 서명. 해당 도시별 항의투쟁 주체 형성됨.

4. 제주 화순미군기지(군항) 반대 투쟁 ; 전국화를 위한 제주본부 제안 보고.

5.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 국민행동

매월 둘째주 화요일 미대사관 월례 투쟁을 중심으로 활동, 두 여중생 살인사건 이후 소파개정 국회 공청회 조직 등 활동

## <2003 년>

1. 6.13 두 여중생 1 주기 추모제

10 만 준비위원 조직사업 추진

2. 7.20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투쟁

이전대상지역 주민 등 1,500 여명 참가

3. 7.26 용산미군기지 반전평화 집회

※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례 : 수요일에는 회의일정이 없다. 군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줄기찬 수요투쟁. 8 천여명 참가 여중생 투쟁 조직

※ 민주노총 경기본부 : 평택 주한미군 총집결 반대투쟁에 앞장 선 지역통일실천단 활동

## <2004 년>

1. 파병반대투쟁

파병반대투쟁은 2003 년부터 대중적 공감대 형성된 사안이며 범국민적 반대투쟁이 전개되었다.

2003 년에 이어 벌어진 2004 년 투쟁과정에서 국민들과 노동대중의 반미반전의식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으며 이것은 파병반대투쟁의 중요한 성과이다.

2. 주한미군 철수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은 올해 들어 선전선동적 투쟁을 넘어 실천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전쟁을 통해 미군의 침략적 본성이 국민들속에 널리 확산되었으며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04 년에는 반미민족공조라는 기치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와 민족공조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 <2005 년>

### 1. 광주 패트리엇미군기지 철거투쟁

- 민주노총 5,000 명 이상이 참가하고 전체참가자 20,000 명 규모의 대규모 대중적 집회 투쟁으로 5.18 광주항쟁 25 돌을 기념하고 미군기지 철거를 위한 민중적 투쟁. 이번 투쟁으로 2005 년 자주통일원년을 투쟁으로 돌파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참가자 모두 주한미군 투쟁의 자신감을 갖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 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

#### (1) 행사 개요

① 일시 및 장소 : 2005 년 7 월 10 일 오후 2 시, 평택 대추초등학교

#### ② 행사진행

- 13:00 문화한마당 진행

- 15:30 인간띠 잇기 행사 시작

- 16:30 미군기지 소지천 걸기

- 18:00 행사 마무리

(2) 참가 현황 : 10,000 여명(민주노총 3,000 여명)

### 3.9.11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

① 일시 : 2005 년 9 월 11 일

② 장소 : 인천 자유공원

③ 참가인원 : 전체 4,000 명 중 민주노총 1,500 명

④ 투쟁기조 : 미군강점 60 년을 맞아 이제 미군주둔을 끝장내자는 결의를 가지고

미군주둔의 상징물인 인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는 투쟁 전개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4 명 구속

#### <2005 년>

#### 1.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

3/4-5 평택 대추초등학교 행정대집행 저지투쟁

- 350 명(민주노총 150 명 참가)

- 행정대집행 저지 성공

3/15 평택 농로 파괴 저지투쟁

- 민주노총 150 여명 참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적극 결합)

- 농로 파괴 저지 성공

4/7 평택 농로 파괴 저지 투쟁

- 500 여명 참가(민주노총 300 여명 참가)

- 일부 저지하고, 밤 사이에 농로 원상 복구

- 31 명 연행(4 명 영장 기각, 2 명 구속)

5/4 대추초등학교 행정대집행 저지투쟁

- 3,000 여명 참가

- 524 명 연행, 37 명 구속영장 청구, 10 명 구속(통일위원장 구속)

- 100 여명 부상

5/5 군부대 투입 규탄 및 생명과 평화의 땅 사수 범국민대회

- 1,000 여명 참가

- 100 여명 연행, 23 명 구속영장 청구

- 100 여명 부상

5/6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문화제

- 1,000 여명 참가

5/7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문화제

- 3,000 여명 참가



5/13 5 · 18 정신 계승, 국방부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평화농사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 서울 광화문(3,000 여명 참가)

-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평택투쟁 결의 문화제 개최

5/14 5 · 18 정신 계승, 국방부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평화농사 실현을 위한 제 2 차

범국민대회

- 7,000 여명 참가(민주노총 4,000 여명 참가)

- 36 명 연행(민주노총 25 명), 다음날 새벽 전원 석방

6/18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를 위한 3 차 범국민

대회가

- 2,500 여명 참가

- 평택 도두리 초입까지 진입 성공

7. 22. '강제철거 저지! 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전쟁기지 강요 미국규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4 차 범국민대회

- 2,500 여명 참가